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장애인·비장애인 함께하는 움직임 프로그램 '몸 오르기' 9월 27, 28일 양일간 개최		
문의	행사 및 취재 : 김지수 학예연구사 t.031-201-8542 m.010-6750-0450		
배포	2025. 9. 5.	쪽수	총 4매

백남준아트센터, 장애인·비장애인 함께하는 퍼포먼스 프로그램 '몸 오르기' 9월 27, 28일 양일간 개최... 접수는 9월 10일까지



백남준아트센터
〈몸 오르기〉

퍼포먼스

배리어프리 퍼포먼스 프로그램 <몸 오르기>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일시 | 2025.9.27.(토) ~ 28.(일) 14:00-17:30
 참여자 | 김원영, 손나예, 하은빈, 타무라 료

* 본 프로그램은 경기문화재단 2025 문화이음 포괄기부금 배분 선정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됩니다.

! ?-? = ∞ !
 NAM JUNE PAIK ART CENTER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움직이며 즉흥 퍼포먼스를 만드는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개최 (9월 27~28일)
- 김원영, 박나예, 하은빈, 타악기 연주자 타무라 료 등 프로그램 진행 맡아
- 경기문화재단 2025 문화이음 포괄기부금 배분 선정 사업 일환, 참가 신청은 9월 10일까지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움직이며 짧은 퍼포먼스를 만들어가는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몸 오르기'를 오는 9월 27일과 28일에 개최한다. '몸 오르기'는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이음 포괄기부금 선정사업으로, 참가자 모집은 9월 10일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몸 오르기'는 참가자 각자가 지닌 몸의 움직임을 탐구하고 이를 짧은 즉흥적 퍼포먼스로 확장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관람객은 백남준아트센터의 공간을 활용하여 단순한 감상자를 넘어 몸을 매개로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은 백남준의 예술을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돌봄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경계 없는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몸 오르기'에는 배리어프리 창작을 꾸준히 실천해 온 네 명의 예술가가 함께한다. 장애인 권익과 신체를 주제로 창작 작업을 이어온 김원영, 박나예, 하은빈과 전통·현대 타악을 매개로 신체와 감각의 소통을 실험해온 연주자 타무라 료가 진행자이자 퍼포머로서 참가자들과 몸의 감각을 나누고 무대를 만들어간다.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몸을 매개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교류의 장'이라며 "차이를 넘어서는 움직임 속에서 예술적 연대와 소통의 가능성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을 권장한다. 참가 신청은 9월 10일(수)까지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양일간 참가가 가능한 신청자를 우선해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선정 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njp.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본 프로그램은 경기문화재단 2025 문화이음 포괄기부금 배분 선정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문화이음 포괄기부금은 경기문화재단의 범국민 기부 캠페인으로, 도민과 기업의 기부금을 모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몸 오르기' 행사 개요

- 행 사 명: 몸 오르기
- 행사일시: 2025년 9월 27일(토) ~ 9월 28일(일) 양일간, 각 14:00~17:30(일 3시간 30분)
- 행사장소: 백남준아트센터
- 참 여 자: 김원영, 박나예, 하은빈, 타무라 료
- 주최/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 참 가: 무료,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 사전예약
- 문 의: 031-201-8542

‘몸 오르기’ 참여자 소개



김원영

김원영은 창작자, 연구자로 무용과 연극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보철(물)로서 움직이기 : 머신/어포던스/케어>(2025), <인정투쟁; 예술가 편>(2024) 등 여러 공연에서 안무자와 퍼포머로서 참여했다. 장애와 인권, 예술과 정체성의 문제를 아우르는 글쓰기를 한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2018, 사계절),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2024, 문학동네) 등을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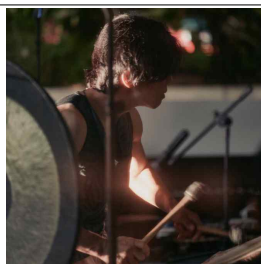
손나에

안무가이자 퍼포머로 활동하며, 몸에 깃든 정동성이 타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 ‘안녕히 영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타인과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지속적으로 질문하며 작업한다.



하은빈

글을 쓰고 공연을 한다. 산문집 『우는 나와 우는 우는』을 썼고 일라이 클레어의 『눈부시게 불완전한』을 우리말로 옮겼다. 공연 <한 방울의 내가> 등에서 움직임을 만들었다. 불구의 몸, 상한 마음, 잘못된 사람에 관심이 있다.



타무라 료

타무라 료는 전통과 현대를 혼합한 감각적 타악연주로 사운드, 무용,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와 협업하며, 소리와 신체, 자연의 파동을 매개로 세상과 소통하는 사운드 아티스트이다.